

12월의 기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장 21절)

1. 2014년 한해 동안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2015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2015년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DCEM 성회안내

2015년 1월 21일 일본 오사카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오사카 축복성회"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 순복음교회, 풍진화학(김종복 장로), Marcia Helena Silva, 조은숙 권사,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문정섭, 박우택(원로장로), 신한림, 오주봉, 오현주, 원소원, 이준호,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십자가와 인간관계

중국 북부의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복수로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부인도, 자신의 자식들도 없는데 괜히 남의 결혼식에 가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자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아내 생각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자기 아내와 닮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방화 및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자신의 분노와 화를 식이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움과 원한에 마음이 짓눌리면 부정적이고 비평적이며 악의에 짙은 생각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쓴 물이 달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ec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인도네시아여 하나되어 일어나라

조용기 목사 초청, 자카르타 봉 카르노 스타디움서 개최 인니에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성령운동 확산 기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 대성회가 지난 11월 19일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슈핏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인도네시아여 하나되어 일어나라'를 주제로 최다 모슬렘 국가의 심장인 자카르타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 될 수 있었다.

특히 테러의 위협과 수시로 쏟아지는 장대비도 이번 성회를 막을 수 없었다. 주최 측은 이번 성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며 성벽을 무너뜨렸듯이, 14일 동안 여리고 기도회를 가진 후 오토바이를 타고 스타디움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성회당일은 평소보다 더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 빗속에서도 믿음으로 성회는

시작됐고, 참석자들은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다.

조용기 목사가 등단하자 퍼붓던 비가 갑자기 멈췄다. 순간 성회장은 신비감마저 뭉뚱했다. 참석자들은 성령께서 기적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이라며 환호하며 감사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60년 가까이 한국과 세계를 향해 전했던 절대긍정, 성령충만, 믿음과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제자교회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권경환(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전호운(순복음강북교회) 김경문(순복음중동교회) 목사와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김원태 원로장로, 김종복 장로(외무경조위원장), 4차원 영성글로벌포럼 회장 김영도, 부회장 허순범 이종찬 장로, 한치완 선교사 외 현지 순복음 선교사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의 불을 지폈다. 특히 분당교회 장로와 성도 30여명도 참석해 은혜를 함께했다.

조용기 목사는 17세 때 폐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살아난 간증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조용기 목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됐고 새 사람이 됐다"면서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 누구나 병고침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1만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 모슬렘국가이다.

인도네시아 2억 5000만 명의 인구 중 약 4000만 명이 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회 지도층이 상당히 많아 기독교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수 갚는 것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2~4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꼭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수가 집안 식구일 때가 있고, 아주 절친한 친구 역시 원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원수도 생겨나고, 우리나라처럼 사상과 이념으로 남북이 갈라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 원수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이 언제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말기라

성경에는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은 맡기되 마음에 무거운 짐인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보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원수 된 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이상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 원수보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 사는 수고와 짐을 맡길 뿐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모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자기편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1~3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께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시고, 환난 때 같이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득실거리는데 어찌 원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두 사람의 원수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우리와 원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상관에 부딪히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의 권함을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결국은 원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 배를 보태어서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원수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수가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고, 오래 참고, 원수 갚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대성회 이모저모

“지금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믿고 기도하라” 폭우 속에서도 성령축제 전개



세계 최대 모슬렘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대성회는 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에 붙은 성령의 불이 아시아와 세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했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앞장서 온 성령·기도운동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켰듯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믿고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날 통역은 야콥 나우웨이 목사가 맡았다.

이어진 신유기도에서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기 원하신다”고 기도하자 성도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다. 믿음의 기도가 선포된 후 모두가 손을 흔들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답했다.

조용기 목사에 앞서 이태근 목사는 영어로 설교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한국을 사용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다”고 말한 이태근 목사는 4차원 영성과 성령운동에 앞장선 스승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이태근 목사의 설교는 국제사역국 한사무엘 전도사가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했다.

이날 성회의 하이라이트는 올림픽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하듯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자는 의미로 성화의 불을 밝혀 영적 올림픽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뉴미니스테리의 존 리 전도사 등 많은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준비한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번 성회는 1년 전 페바 목사가 ‘All for One’이라는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의 상암대성회 같은 기도회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페바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기도와 성령운동이 동남아시아를 덮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조용기 목사 초청을 준비했고, 이로 인해 니코 목사도 함께 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11월 18일, 19일 인도네시아 목회자, 실업인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증진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페바 아판(Feba Affan) 목사는 누구?



페바 아판(Feba Affan) 목사는 코인(Koin)무역회사 CEO로 실업가이면서 슈핏 패밀리 미니스트리 대표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 하고 있다. 무슬림 지도자이 기도 했던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 닷산 자동차 등을 최초로 수입하는 등 인니 8번째 부자로 그의 4번째 부인의 15번째 자녀다. 7세 때부터 이복 오빠로부터 성폭력으로 시달렸던 페바 목사는 집안의 트리블메이커로 성장, 영국으로 쫓겨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군인과 결혼을 한 후 사업가이자 어머니, 목회자로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아버지가 세운 이슬람학교 건넌편에 크리스천 스쿨을 건설하고 있다.